

Barun ICT

6 June KOR newsletter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다양한 ICT 관련 사회 현상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빠른 IT 보다는 바르고 건전한 IT 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융합 ICT 연구소를 지향합니다.

제7회 Asia Privacy Bridge Forum 개최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지난 5월 23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CPO포럼과 함께 제7회 아시아 프라이버시 브릿지 포럼(Asia Privacy Bridge Forum, 이하 APB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Personal Data Protection in an Era of AI and Big Data Analytics’를 주제로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7개국의 프라이버시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국CPO포럼의 Privacy Global Edge 2019와 공동 개최를 통해 APB Forum의 제도적/학술적 콘텐츠와 PGE의 실무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오전에 진행된 키노트 세션에서는 1) SC제일은행 김홍선 부행장의 CISO와 CPO의 역할과 사명, 2) 중국 팡다 파트너스의 지안유안 양(Jianyuan Yang) 변호사의 데이터 보호의 새로운 시대: 중국의 모범 사례 3) 싱가포르경영대의 워렌 칩(Warren Chik) 교수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AI혁신의 역할과 미래가 차례로 발표되었으며, 오후에 진행된 APB Forum 트랙에서는 홍콩과 말레이시아 등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5월 24일(금)에는 APB Forum의 두번째 날 행사로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간담회가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머레이홀에서 진행됐다. APB Forum, Fall 2018에서 발표된 ‘국가 간 정보 요청 및 협력을 위한 양식(Corss-border Information Request/Collaboration Toolkit)’의 개선에 대한 논의와 협력방안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푸미오 심포(Fumio Shimpō, 게이오대 교수) 위원은 일본과 EU 간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상호적정성(Mutual Adequacy Findings)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 밖에,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와 싱가포르경영대 AI 및 데이터 거버넌스 센터 간의 ICT분야의 포괄적 연구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 진행된 각각의 발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번 호에 별도로 정리하였다. 

ASIA PRIVACY BRIDGE

Personal Data Protection in an

▶ Keynote Speech



Jianyuan Yang

Fangda Partners, China

◆ Best Practices in China in a New Era of Data Protection Enforcement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는 아시아의 리더로서 손색이 없으며, 다타탕 (Datatang)과 홈링크(HOME LINK)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에서와 같이 중국은 중국 사이버 보안법 (China Cyber Security Law)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이 잠재적인 형사 및 민사 책임의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분야는 크게 8가지로 1) 개인정보 침해 2) 사이버 보안관리 의무의 거부 3) 불법적인 컴퓨터 정보 시스템 해킹 4) 비 호환 네트워크 제품/서비스 제공 5) 신빙성 있는 개인 신원정보 요청의 실패 6) 사이버 보안을 위협하는 활동에 참여 7) 개인 정보와 관련한 권리 침해 8) 사이버 보안 보호 의무 이행 실패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중국 내 금융, 헬스케어 및 TMT(기술, 미디어 및 통신) 분야의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민감한 데이터의 양과 빅데이터 및 AI 기술의 적극적인 처리 및 활용 등을 고려했을 때, 데이터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기업 외부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 🌐



Warren Chik

Center for AI and Data Governance,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ingapore

◆ The Role and Future of AI Innovation for Data Protection

싱가포르 정부의 AI윤리 가이드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AI를 통해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 투명성, 공정성 및 설명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A.I. 혁신과 데이터보호법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시한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윤리 지침’(2019년 4월 8일에 발표)과 싱가포르 IMDA가 제시한 ‘아시아 최초의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2019년 1월 23일 발표, 현재 공개 컨설팅 및 피드백 반영 중)에 대한 참조가 필요하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를 벤치마킹하여 설립된 싱가포르 정부 주도의 AI 및 데이터 거버넌스 센터(Centre for AI & Data Governance)는 민관학을 연계하는 연구의 주체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

FORUM SPRING, 2019

Era of AI and Big Data Analytics

▶ Session 1. New Approaches for Successful Data Protection in Asia



Joyce Lai

Privacy Commissioner for Personal Data,
Hong Kong

◆ Data Protection in Digital Revolution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PCPD, Privacy Commissioner for Personal Data)는 Privacy Management Program(PMP)을 통해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관리, 프라이버시 관련 위험의 최소화,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기업의 기본적인 법 준수와 책임 및 윤리적 의무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조직 차원의 지지, 교육 프로그램 체계, 상시적 평가를 통한 보완을 효과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 가지 핵심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Ethical Accountability Framework for Hong Kong, China”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윤리의 핵심 가치를 ‘데이터 관리’를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데이터는 존중되어야 하고(투명, 개인 통제),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며(주권자에게 혜택, 위험 최소화), 공정(편향과 차별없는)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홍콩 PCPD에서는 현실적으로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데이터 윤리 정보 리플렛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



Abu Bakar Munir

The Data Protection Sdn. Bhd,
Malaysia

◆ AI and Big Data Analytics:

Big Challenges to Privacy and Data Protection

AI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즉, 초기에 프로그램 된 대로 분석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능적인 학습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후 학습된 모델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AI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은 고유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처리과정이 다른 분석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투명하고,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습 및 분석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용도가 변경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했을 때, AI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에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첫째,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 동의절차가 실용적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셋째, 목적 제한이 빅데이터 분석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넷째, 데이터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다섯째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여섯째, 빅데이터 다양성과 양, 복잡성에서 오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권리 문제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Data Controller와 Data Processor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앞서의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 (Trustworthy AI)’를 제시한다. 즉, AI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기술적, 사회적 관점에서도 견고해야 한다. 🌐

▶ Session 2. Rethinking Privacy in an Era of AI and Big Data Analytics



Doil Son
Yulchon, Korea

◆ Big Data Policy, Regulation and Market

한국에서 AI와 빅데이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빅데이터 규제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률은 물론 각 산업 분야의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모두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어 기업이 AI와 빅데이터 시장에 진입하여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NGO 단체의 강한 반발도 기업의 입장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앞서의 상황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 수집 목적의 확장이다. 둘째,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적 정의 과정에 가명, 익명 정보의 개념 및 활용 범위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조합 과정(비식별화 → 조합에 대한 요청 → 전문 기업 → 조합된 DB에 대한 평가 → 필요시 추가적 비식별화)을 포함한다. 더불어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명 데이터 표준, 조합 데이터 표준, 사전 동의 규제에 대한 유연성을 들 수 있다. 🌐



Sinta Dewi Rosadi
University of Padjadjaran,
Indonesia

◆ Data Privacy Ecosystem and Regulation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관 또한 없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칙은 정보전자거래법과 통신, 은행 등과 관련된 몇 가지 부문별 규정/법률에 흩어져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사용의 증가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확산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올해 9월 인도네시아 개인정보보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제법과 표준을 따르나 아세안 지역의 규제/법과 인도네시아의 기존 법적 체계가 고려됐다. 🌐

[일자] 2019년 5월 23일(목)
[장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최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관
한국 CPO 포럼
연세대학교
바론 ICT연구소

후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자] 2019년 5월 23일(목)
[장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협찬
KIM & CHANG
Lee & KO 법무법인 공창
Symantec
Quad Miners

▶ Session 3. Fair and Secure Use of Data



Kyoungjin Choi
Gachon University,
Korea

◆ Global Effort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1974년 미국에서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Privacy Act of 1974)이 처음 등장한 이래로 EU, 일본, 한국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관련 법안이 나타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 특히, 2016년 EU의 GDPR이 등장하면서 대부분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최근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와 완화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하는 동시에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EU의 GDPR도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강력한 개인정보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수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 상호주의원칙, 외국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과 같은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전세계적 흐름은 개인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인류가 발전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역사는 거의 없는 만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동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

▶ Session 4. New Roadmap for Privac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 Panel Discussion: Transparent AI, and Data Nationalism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New Roadmap for Privac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를 주제로 아시아 각국 연사들의 발언과 함께 청중이 참여하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김범수 소장은 OECD의 AI윤리가이드를 소개하고 데이터 국가주의로 인하여 각국이 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지적했으며,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앞선 세션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과 투명하고 책임있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언하였다. 🌐

▶ APB Forum 2일차 - 전문가 토론회

APB Forum, 두번째 날 행사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책적 이슈와 기술적 현안이 함께 논의됐다. 특히, 지난 2018년 가을에 진행된 제6회 APB Forum을 통해 합의 및 발표된 CIR(Cross-border Information Request/Collaboration) Toolkit을 개선하고 향후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이 진행되기도 했다.



Sangmi Cha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Session 1. APB Forum CIR Toolkit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은 AI와 빅데이터 어널리틱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 되는 상황 하에서 CIR Toolkit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 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CIR Toolkit을 보완하고 실질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전문가 리뷰, 다국어 번역 등 4가지로 나누어 제시.

◆ Session 2. Digital Transformation & AI (Title: Blockchain for Smarter Cities)

이화여자대학교의 채상미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이 Smart City 구축 및 운용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미국의 벨몬트, 한국의 송도 등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 더불어, Smart City 구축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이슈와 블록체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

◆ Session 3. Mutual Adequacy between EU and Japan

일본 게이오대학교의 후미오 심포 교수는 EU와 일본 간의 효과적이고 원만한 데이터 전송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된 수년간 논의를 통해 도출된 상호적정성 합의(Mutual Adequacy Findings)에 대해 설명. 2018년 7월에 도출된 이번 합의(Findings)는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일본의 APPI(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에 대한 양측의 심층적 검토와 배치되는 영역에서의 조율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향후 양측의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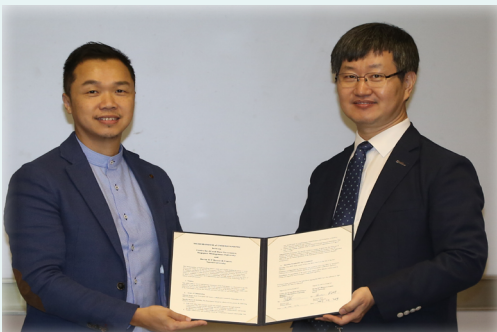
◆ Session 4. Future Privacy Issues Across Borders in Asia

김범수 소장은 영유아의 디지털 안전,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프라이버시 리터러시 등 향후 아시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다양한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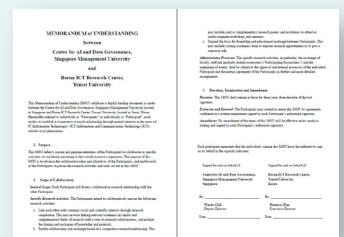


Fumio Shimpō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Keio University
Japan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세션 진행과 별도로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와 싱가포르 경영대 AI 및 데이터 거버넌스 센터 간의 인력교류를 포함한 ICT분야의 포괄적 연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AI와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주요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연구하기로 하였다. MOU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은 “이번 MOU를 통해 연세대학교와 싱가포르경영대 간의 실질적 연구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분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장기적 연구성과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 한국IT서비스학회 춘계학술대회 <지역연결사회를 위한 IT서비스 혁신과 성장전략>



2019. 5. 15. (수)
한국과학기술회관(강남역)



출처: IT서비스학회 (<http://www.itservic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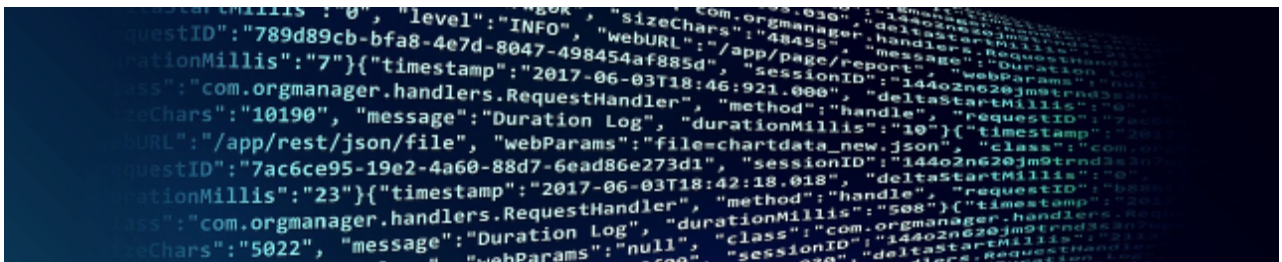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은 지난 5월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19 한국IT서비스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IT서비스 우수연구인상을 수상했다. ‘지능연결사회를 위한 IT서비스 혁신과 성장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후원하였으며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석제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이성일 한국생산연구원장 등 유관부처와 산업계 및 학계의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5G 기반 혁신성장, IT국방서비스, 정보보호 GRC: 5G 시대의 의료보안 등 총 6개의 트랙에 걸쳐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키노트 세션에서는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이 ‘4차산업시대의 민간, 공공부문 혁신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IT서비스학회의 최정일 회장(숭실대 교수)은 “IT서비스산업은 기존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이번 행사가 IT서비스 등 유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됐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블록체인 이슈분석: 한국과 미국

손새아, 전병진, 김희웅 (2019).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블록체인 이슈분석: 한국과 미국
한국IT서비스학회지, 18(1): 4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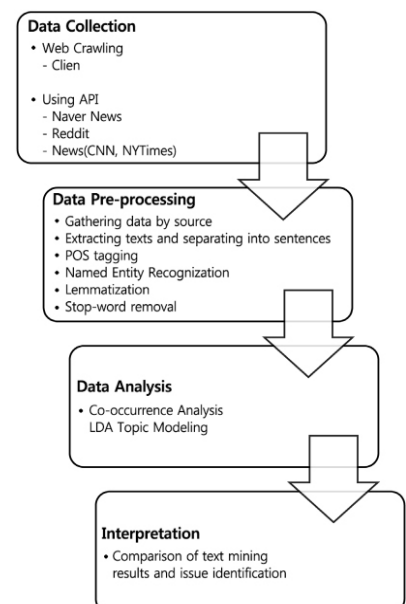
손새아, 전병진, 김희웅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2017년 비트코인 열풍과 함께 촉발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블록체인 자체가 갖고 있는 기술적, 사회적 특성뿐만 아니라 산업적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학술적 측면에서도, 금융은 물론 공공,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적 트렌드를 이해할 때,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와 활용 분야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이슈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산업적/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암호화폐에 급격한 관심이 쏠리기 이전부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온 미국과 2017년 하반기 이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화두로 떠오른 한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포럼 및 뉴스 기사에서 게시글과 댓글(한국 소셜미디어: 총 69,075개, 미국 소셜미디어: 총 58,775개)을 수집하여 동시출현 단어 분석 및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을 수행한 결과,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추출된 키워드 및 토픽에서 유의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한국과 미국 모두 공통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적 활용과 암호화폐 거래 및 투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및 ICO 규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과 금융 분야에서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미국은 암호화폐 논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블록체인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 ICO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스타트업 등 상대적으로 좀 더 산업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더불어 온라인 포럼에서는 개인의 의견이 주로 표출되는 특성으로 인해 미시적 관점의 논의가 많았으나, 뉴스 기사에서는 블록체인 정책 및 산업, 경제나 암호화폐의 가치 등 거시적 측면의 논의가 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



<Figure 1> Research Procedure

Is AI an Invader That Threatens Humans?:

Complementary Effect between Agents and AI on Productivity of Call Center Agents

김승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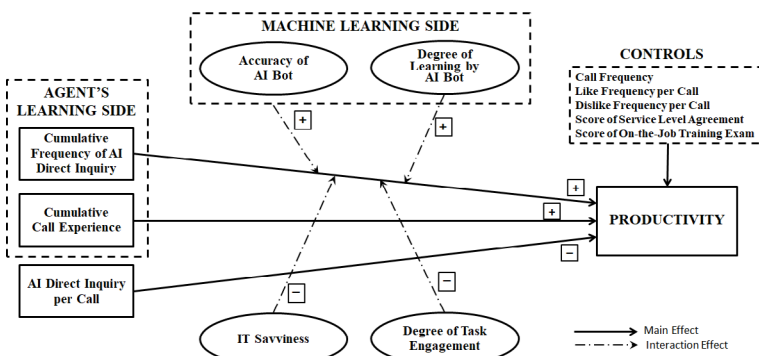
AI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비스,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콜센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AI는 콜센터 일자리를 위협하는가? 아니면 보조자로서 업무 강도를 줄여주고 업무 생산성(효율성)을 향상시키는가?

2019년 4월 25일, 바른ICT연구소는 AI가 업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김승현 교수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승현 교수는 'Is AI an Invader That Threatens Humans?: Complementary Effect betw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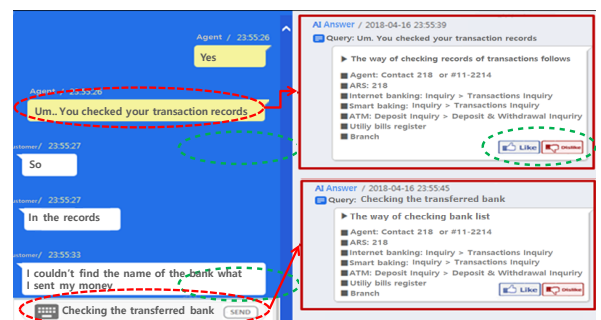


Agents and AI on Productivity of Call Center Agents'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는 AI bot을 도입한 국내 시중 은행의 콜센터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학습 곡선 이론 (Learning curves theory)에 기반하여 agent's learning side (AI 누적 사용 빈도)와 machine learning side (AI bot 정확성, AI bot 학습 정도) 모두 고려하였다. 이 때, AI bot은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콜센터 상담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 (예를 들어, 고객의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 보여주기)이다. 분석결과, AI bot 사용 빈도가 높아질수록 업무 생산성이 향상 (즉, 전화 당 상담 시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효과는 AI 정확성이 향상될수록, AI 학습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IT 지식이 많은 직원에게는 AI bot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AI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지만, (적어도 콜센터에서는) AI 시스템이 잘 설계되고 (즉, 고도화된 머신러닝 기반으로 우수한 정확성 보여주기) 직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잘 활용한다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과 AI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



< 연구모형 >



< AI bot 활용예시 >

AI 자동추천의 명암

나유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네이버가 지난 4월 개편을 통해 다양한 AI 추천 서비스를 선보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AI 뉴스 추천 서비스인 '에어스'이다. 기존에 사람이 추천하던 뉴스를 AI 추천으로 대체한 것이다. AI가 사용자의 뉴스 조회, 검색 기록 등을 수집해 자동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뉴스를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이번 개편을 전후로 1일 평균 페이지뷰(PV)가 약 6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1].

AI를 활용한 기술들은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고 있다. 구글 지메일은 '스마트 편지쓰기'라는 AI 기반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구글 AI가 사용자를 대신해 간단한 문장과 단어를 추가해주는 기능으로, 기존 영어만 가능했던 것에서 가능한 언어의 수를 확대하기도 했다. 인사 문구로 자주 입력했던 문구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이메일 내용을 분석해 제목을 제안해 주기도 한다[2].

이러한 AI 기반의 자동추천 기술은 사람이 수동으로 추천 대상을 선정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이용자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검색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편의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과 알고리즘에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로는 확증편향에 대한 우려다. 확증편향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를 위주로 습득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현상이다. 가령 뉴스 자동추천 AI 시스템 같은 경우, 사용자가 선호하던 분야의 뉴스나 선호하던 정치색의 기사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강화시키는 것이다[3]. 뿐만 아니라 AI 기반의 자동추천 기술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개인정보 악용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AI 자동추천 시스템이 빅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만큼 수집된 빅데이터의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이민국에서 마이

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안면 인식 AI 기술을 활용해 불법 이민을 막으려고 시도한 사건이 있다[4].

AI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동전의 양면처럼 이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윤리강령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난 5월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는 'AI 이사회 권고안'을 36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초로 국제적 표준안을 설립한 것이다. 권고안은 AI의 개발 및 활용과정에 있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지 못할 경우 일종의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5]. 이에 앞서 AI 개발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EU 또한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통제 가능성, 안정성, 개인정보보호 등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6]. 물론 이러한 권고안들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히 발전하는 AI 기술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악용 요소를 발견하고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모범이 된다는 점에서 올바른 ICT 사회를 향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1] 이국현 (2019 April 5.) 네이버 AI기반 뉴스 추천, 하루 평균 페이지뷰 69% ↑ - 뉴시스. Newsis. Retrieved fr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05_0000610924&cID=13001&pID=13000
- [2] 강일용 (2019 April 8.) 구글, 지메일 AI 기반 자동추천 기능 강화 - 아주경제. Ajunews. Retrieved from <https://www.ajunews.com/view/20190408174122133>
- [3] 문현숙 (2019 May 8.) 뉴스 자동추천 만족도 높지만 '확증 편향' 우려도 - 한겨레. The Hankyoreh.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93040.html>
- [4] 이진술 (2019 May 15.) 혐오발언·감시에 악용되는 AI...윤리 문제 막을 수 있을까 - 인더뉴스. Inthenews. Retrieved from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5434>
- [5] 조승한 (2019 May 25.) "AI는 복지·민주주의 가치 담고 인간에 의한 통제 가능해야" - 동아사이언스. Dongascience. Retrieved from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28946>
- [6] 권상희 (2019 April 9.) EU, AI 개발 7대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 지디넷코리아. ZDnetKorea. Retrieved from <http://www.zdnet.co.kr/view/?no=20190409065945>

단어 세 개로 전세계 어디든, 세 단어 주소

김지수

연세대학교 (CTM) 창의기술경영학과



세 단어 주소 서비스를 창시한 왓쓰리워즈(What3words)가 카카오맵과 손잡고 국내 시장 확장을 노린다[1]. 세 단어 주소 서비스는 전국을 가로 3m, 세로 3m의 사각형으로 나누어 고유의 단어 세 개를 부여하여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의 공식적인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302동(연세 삼성학술정보관) 720호 바른ICT연구소’이지만, 현재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자리는 단 세 단어, ‘///페트평.쥘다.돌리는’으로 표현된다.

친구와 만날 때, 누군가와 약속을 잡을 때 우리는 만날 장소를 정한다. 하지만 기존주소체계로 위치를 설명할 때는 주소의 이름이 길어 한계점이 존재하며, 스마트폰 등을 통한 GPS 좌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오류발생확률이 높아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전달하는데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세 단어 주소이다. 가로 3m, 세로 3m의 굉장히 구체적인 위치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곳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 애인과 만났던 곳과 같은 개인의 추억이 서려 있는 장소 또한 세 단어 주소를 통해 위치를 찾고 공유할 수 있다[2].

실제로 몽골은 국가 차원에서 세 단어 주소를 공식 주소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3]. 몽골의 경우 아직 길 이름이 존재하지 않거나, 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광활한 초원으로 인해 기존 주소체계로는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세 단어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서 우편 혜택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우편물을 손쉽게 받아볼 수 있고, 주소가 없어 임시거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자신만의 주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도시화가 잘 된 영국의 경우에도 기존 주소 체계와 더불어 응급시설을 부를 때 세 단어 주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경우 차세대 자율주행 자동차의 효과적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위해 세 단어 주소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4].

이렇듯 기존 주소체계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위치를 파악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세 단어 주소 서비스의 사회적인 효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신주소체계를 개발한 주체가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데이터 독과점의 우려도 안고 있다. 세 단어 주소의 개발기업인 왓쓰리워즈는 데이터를 허가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비스 사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를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 역시 금하고 있다[5]. 그러나 주소체계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적 성향을 가지며, 그렇기에 세 단어 주소 체계의 사용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한 권한이 사기업에게 있다는 점은 공공기관의 신주소체계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제약을 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단어 주소는 현재 기준 36개 언어로 번역되어 확산되는 등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주소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그 동안 누리지 못한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한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디지털 약자도 세 단어 주소를 통해 좀 더 손쉽게 배달, 길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세 단어 주소를 활용한 사회 혁신의 가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1] 김위수. (2019). ‘새로운 주소 만들자’...w3w, 세 단어 주소 서비스 - 디지털타임스. Retrieved April 29, 2019, from 디지털타임스 website: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41602109931033003
- [2] 이국현. (n.d.). “///야옹.돌렸다.뽀는”으로 가주세요...” 세 단어 주소’ 韓 공략. Retrieved April 29, 2019, from Newsis website: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야옹돌렸다뽀는으로-가주세요...세-단어-주소-韓-공략/ar-BBVV/>
- [3] 윤동영. (2016). 대초원의 나라 몽골, 세 단어를 조합한 혁신적 주소체계 첫 도입 | 연합뉴스. Retrieved April 29, 2019, from 연합뉴스 website: <https://www.yna.co.kr/view/AKR20160615143600009>
- [4] 이상우. (2017). [The GEAR] `세상 모든 주소를 세 단어에` 벤츠, 내년 W3W 내비게이션 도입. Retrieved April 29, 2019, from The Gear website: <http://m.thegear.net/15134>
- [5] Dodds, L. (2016). What 3 Words? Jog on mate! - Lost Boy. Retrieved April 29, 2019, from <https://blog.ldodds.com/2016/06/14/what-3-words-jog-on-mate/>



스마트폰 중독, 영유아로 확산..고질병 되기 전 적극 대응해야

[아시아경제] 19.04.19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영유아층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영유아층은 충분한 자기조절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문제와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은 “영유아층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회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예방이나 사전교육이 중요한 만큼, 디지털 리터러시처럼 스마트폰 환경에 적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관의 오주현 연구교수는 “영유아 과의존의 경우 시력·청력, 자세 등 신체 발달의 저하문제와도 직결되지만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줄면서 인지·정서적 능력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뚜렷한 방향제시가 없다. 정작 부모가 교육받을 시간이 부족하고 교육을 받아도 실생활에서 적용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면 보다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갖춰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1814173670243>



“스마트폰病 막자” 11개 부처 중복·이슈 선점 경쟁...컨트롤타워 중요

[아시아경제] 19.04.20



최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이라는 5G 시대의 새로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필두로 11개 부처와 14개 기관이 합동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대책을 맡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총괄하는 이번 대응체계방안에 참여하는 부처는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민권익위, 방통위, 사감위, 경찰청 11개 부처이다. 이 11개 부처 뿐 아니라 여기에 속해있는 14개 공공기관이 실무를 집행한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범위가 더 커진다. 스마트폰 과의존 대상을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별로 포함하다보니 사실상 모든 부처가 포함되게 되면서, 부처간 업무중복, 시각차, 비효율, 부처간 주도권 싸움등이 걱정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각 부처들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으로 내놓은 구호들도 ‘스마트 디톡스, 폰 금식, 중독 치료,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시티즌십’ 등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체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과기정통부의 역할과 방향성 제시가 더욱 중요해진다. 이에, 김범수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장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걸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는 단순한 접근 보다는, 사용자 스스로 올바른 사용습관을 들이는 것은 물론 개발자, 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유도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1911483514091>

영유아 디지털 과의존 심각...이통3사 “키즈 보호하자”

[아이뉴스24] 19.05.02

영유아 디지털 과의존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면서 이동통신 3사도 보호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통 3사는 최근 IPTV뿐만 아니라 AI 스피커 등에서 영유아 대상 교육 콘텐츠를 늘리는 한편 디지털 미디어 노출에 따른 과의존 심화 등의 역작용 차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SK텔레콤은 키즈폰의 유해물 노출 방지를 위해 인터넷 웹서핑과 앱 스토어를 차단하고 카카오톡 대신 전용 메신저인 ‘미니톡’을 제공하는 등 자체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KT는 올레tv에서 ‘키즈모드 설정’을 하면 키즈채널과 키즈 전용 VOD만 볼 수 있어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정해진 시간 또는 약속된 VOD만 제공한다. LG유플러스도 U+tv 아이들나라를 통해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유튜브 키즈’ 역시 시청제한을 둬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검색 설정을 통해 자녀에게 적합한 동영상 시청을 유도하기로 했다.

출처: <http://www.inews24.com/view/1175597>





아프리카의 디지털 호스피탈리티, 호텔 만족도 변화시킬 것

Wihogora XANDRA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의 대부분이 디지털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다. 이 파격적인 기술은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내면서 기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발맞춰 고객정보를 활용한 비즈니스에서 상위 업종으로 분류되는 호텔산업(hospitality industry)은 보다 효과적으로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방안으로 디지털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포(Infor)사의 아프리카 주요 파트너이자 영업이사인 아드리안 로수우(Adrian Rossouw)는 고객들의 기대치가 기존에 비해 확실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제 고객들은 제품의 가치와 그것이 주는 경험에 있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통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디지털 고객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인포 호스피탈리티(Infor Hospitality)는 기업에게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을 통해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도록 장려한다. 또한, EOH의 최고 지배인인 렌시아 오스틴(Rentia Austin)은 디지털 호텔이 곧 아프리카 전역에 지어짐으로써 아프리카가 고객들의 휴가를 모험으로 바꿀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예를 들어, 에어컨과 같은 일부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고객이 실내에 없는 동안 기기들의 손상이 자동으로 인식되어 고객이 어떠한 불편도 겪지 않도록 수리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다. 호텔 장비의 손상을 인지한 하우스키퍼가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로그인하여 정비기관에 정비인력을 보내도록 직접 알리는 업무 카드가 제공될 것이다. 만약 수리 전에 손님이 돌아오면 호텔 바에서 무료 음료를 제공하겠다는 문자를 보낼 것이고, 방이 준비가 되었을 때 손님에게 알리기 위해 바텐더에게도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다[1].

이러한 시나리오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적어도 사물인터넷(IoT)의 힘을 알고 있는 관련 업계는 이것이 비교적 단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아프리카는 전세계에서의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에 고무되어 있으며, 건강, 은행, 통신 및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와 기술 혁신을 보이고 있다. 이제 호텔 서비스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한 단계 진화하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아프리카에서의 고객의 호텔 만족도 역시 증가할 시기가 되었다.

출처: [1] "The voice of Africa's ICT Sector, Africa's digital hospitality transform guest experiences", <https://www.biztechafrika.com/article/africas-digital-hospitality-transforms-guest-exper/14549/>, Retrieved on 7th,May,2019.

10대 드론 해커에 의해 드러난 사물인터넷(IoT)의 보안 문제

Claudine UKUBEREYIMFURA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정치학 및 국제관계



이 시대의 혁명적 기술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IoT)은 우리 사회 깊숙이 받아들여져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IoT의 채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IoT 기술과 관련된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 타운에 있는 카스퍼스키(Kaspersky) 연구소는 사이버보안(Cybersecurity)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13세 소년 루벤 폴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무인항공기 드론의 해킹으로 IoT 기기의 보안상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1]. 이 어린 소년은 기존 사용자의 연결을 끊고 드론을 완전히 제어하는 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이는 드론에 적절한 보안 제어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루벤은 아무런 범죄 의도가 없는 자신이 쉽게 드론을 해킹할 수 있었다면, 사이버 범죄자들도 똑같이 그 취약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1]. 카스퍼스키 연구소는 이번 해킹이 보안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드론, 베이비 모니터 등 IoT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보안이 허술한 기기를 공급할 경우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기획됐다고 했다[1].

한편 소비자들에게 보안이 전제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기업의 책임이지만,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안이 갖춰진 IoT 기기를 선택하고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사이버 시대의 보안이 소비자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IoT 제품을 시장에 출시 할 때 보안에 대한 우려를 무시한 채 수익성 확보만 치중하고 있다[1].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루벤의 말처럼 IoT는 IoT(인터넷의 위협 : Internet of Threat)이 될 수 있다. IoT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에 연결된 약 70억 대의 기기가 해킹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교육 역시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IoT기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 먼저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정부를 비롯한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IoT기기의 보안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출처: [1] "Teen's Drone Hack Exposes Poor Security Controls for Internet of Things Devices." Biztech Africa, 30 Apr. 2019, www.biztechafrika.com/article/teens-drone-hack-exposes-poor-security-controls-in/14574/.



이탈리아에 있는 노년층과 디지털격차

Andres Jimenez VILLA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Iposos 리서치 회사는 “유럽에 사는 노년층, 시간을 잘 보낼 때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낀다”는 것을 그들의 연구를 통해 알아 냈다[1]. 이번 연구는 유럽과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노년인구를 대상으로, 그들이 디지털 능력치를 높이고,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부적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의 일주일당 인터넷 접속횟수는 벨기에가 유럽 국가중 제일 높았고 (3.7) 그 다음은 독일 (3.5), 프랑스 (3.4) 그리고 이탈리아(3.3)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학자 로라 박사는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는 디지털 이민자 (digital immigrants)라고 일컫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인터넷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인터넷을 쓰려면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2]. 말하자면, 노년층들은 인터넷을 배울 때 이민자가 새로운 나라에 처음 정착했을 때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인터넷을 접하며 자란 어린 세대들은 디지털 원주민 (digital natives)이라고 불리는데, 그들에게 인터넷은 어릴 적부터 익숙하기 때문이다. 로라 박사에 의하면, 노년층은 집중하여 한가지 일을 배우고 한가지를 가르치는 것에 익숙하지만, 젊은 세대는 멀티태스킹에 익숙하다고 한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은 직선적이고, 빠르며, 실용적이고 또한 확률계산적이다. 노년층은 젊은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젊은이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기술들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3].

다시 말해, 노년층이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노년층이 디지털 세계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 www.grey-panthers.it. 에서는 매일 노년층을 위해 모든 이탈리아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소식을 제공한다. 또한, 이탈리아 정부의 ‘디지털 변화 팀’은 앞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목표와 신념을 설정했다. 그 중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화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모든 연령의 시민이 쓸 수 있도록 쉬워야 한다”였다[4]. 이 신념과 관점이 노년층에게도 적용되면, 노년층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세상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탈리아는 노년층과 젊은 세대의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여전히 많다. 🌐

출처: [1] LA REPUBBLICA (14th of September 2018). Repubblica.it. Retrieved from: https://www.repubblica.it/economia/rapporti/osservazioni/stili-di-vita/2018/09/14/news/il_web_conquista_i_nonni_siti_di_incontri_inclusi-206422295/
[2] Mossberger, Karen. "Digital Citizenship - The Internet, Society & Participation" By Karen Mossberger, Caroline J. Tolbert, and Ramona S. McNeal." 23 Nov. 2011. ISBN 978-0819456069
[3] Ambrosiano, L. "Come cambia il modo di pensare dei nativi digitali". Milan, 13th of March 2019. Retrieved from: <https://www.grey-panthers.it/wp-content/uploads/2019/03/presentazione-laura-ambrosiano.pdf>
[4] Digital Transformation Team, principle n.3. Teamdigitale.governo.it. Retrieved from: <https://teamdigitale.governo.it/en/mission>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Post-Doc 채용



채용분야

공학 분야: 컴퓨터공학/과학 박사 3명 (AI, Deep Learning 관련 분야 우대)
사회과학 분야: 경제학 박사 2명

수행업무

바른ICT연구소의 연구방향과 관련된 연구수행 국내외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과 교류 및 공동 연구

지원방법

이력서,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연구실적 목록 제출 (이메일: barunict@barunict.kr)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barunict.kr, 02-2123-6694, QR코드 참조.



* 본 연구소에서 제공되는 바른ICT뉴스레터는 국내외 우수 ICT 연구 동향 및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바른ICT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news@barunict.kr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Publisher 김범수 | Editor-in-Chief 구윤모 | Editor 장윤희 | Designer 이예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302동 연세·삼성학술정보관 720호
02-2123-6694 | www.barunict.kr(국문), www.barunict.org (영문)

